

나의 아버지 김윤경

김 순 임

(한결 김윤경 선생의 따님)

어느덧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6년이나 되었다(1969.2.3).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아버님의 생시의 모습을 되살려 보니 벅찬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원리 원칙대로 사셨고,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님. 언행일치. 한치의 어김이 없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자라온 자손으로써, 너무나도 부족하고 왜소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보잘 것 없는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앞을 가려 붓을 들기가 망서려진다. 아버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안겨 드린 막내 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아버지는 갑자기 객지(客地)에서 돌아가셨다.

여행 떠나시기 하루 전에 담이 드신다고 하시며 누워 계셨다.

이 때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야 했다.

그 해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다. 눈이 무릎까지 차는 산길을 올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노인들에게는 겨울 외출도 나쁘다고 하는데 여행을 떠나셨던 것이다. 워낙 여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지라 어머니의 만류도 뿌리치시고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떠나셨던 것이다. 그 해 겨울의 추위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다. 16

년만에 닥치는 추위라나, 영하 16도, 17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였다. 교수산업시찰단(教授産業視察團)을 따라 가신 것이다. 젊은이들도 뻑뻑한 스키줄이 힘들다고 빠지는 판에 노인이 거기를 따라가신 것이다. 강추위에 심근경색증 발작을 일으켜서 기어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곳이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다.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다. 참척을 보신 것이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큰올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또 그 해 가을에는 어머니께서 유문암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 때 어머니의 연세는 78세이셨다. 딸들은 수술 반대 입장이었고, 큰오빠(당시 성모병원 정형외과 부장, 의학 박사)는 수술을 능히 이겨내실 만한 체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수술 최적기라고 하신다. 지금 수술 받으면 적어도 5년은 연장될 터이니 그만하면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버지는 의사가 옳다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좋다시며 큰오빠 편에 서셨다. 그리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않으셨다. 그 때는 통행금지제가 있을 때였다. 밤중 2시에 겨우 깨어나시니 얼마나 조마조마 했겠는가? 즉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더니 통행금지 해제가 되자마자 달려 나오셨다. 한숨도 못 주무신 모양이시다. 몹시 수척하셨다. 밤새도록 묘자리 걱정까지 하신 것이다. 젊은이 같으면 아침에 수술하면 오후 1시경에는 깨어난다는 것이다.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도 오빠도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이것이 두 번째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후 어머니는 회복되시어 오빠 말씀대로 83세의 천수를 누리셨다.

거기다 나머지 큰 충격을 안겨 드렸다. 남편이 자유교양추진회(自由敎養推進會)라는 고전(古典) 읽기 운동(출판 사업)을 펴고 있었다.

이 운동에 아버지를 회장으로 모셨다. 부회장에는 여당 국회의원 김모 의원을 아버지께 말씀드려 앉혔다. 말 잘하고, 학벌도 현란하다는 김모 의원은 추진력도 있고 일도 열심히 잘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급사 아이를 시켜 인감과 직인을 빼들려 자기 사무실로 옮기고 수금줄을 움켜잡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출판 사업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던 것이었다.

남편 입장에서 자기 손으로 부회장 자리에 앉혀 놓고, 이제 와서 자기 입으

로 그 사람 몸쓸 사람이라고 어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밤잠도 못 자고 거의 돌아버린 상태다. 남편은 낮이 나갔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중 그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공표되었다. 세상을 발칵 뒤집는 큰 사건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69.2.3) 몇 달 뒤(1969.5.15)의 일이었다(후에 金奎南 의원은 사형 당함). 남편이 얼마나 혼줄이 났겠는가? 남편은 남산에도 끌려갔다가 왔다. 나한테는 숨겼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다. 문공분과 위원장이다. 뽑아 놓고 나를 골탕먹였다.”고 했더니

“미안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라.” 했다고 큰소리쳤지만, 아마도 남편은 이 때 골병이 든 모양이다. 이것이 세 번째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버님은 병환이 나신 것이다. 여북하면 연락받고 내려간 나에게 첫 말씀이

“너희 일은 어찌 되었니?…… 큰 일이로구나.” 하시는 것이다.

2월 2일 새벽에 부산(제일병원-큰오빠 친구)에 도착했는데 그 이튿날 돌아가셨다.

나는 통곡. 또 통곡하였다.

나는 아버지께 무거운 납덩이를 가슴 위에 얹어놓은 채로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못 보신 채로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는 “조금만 더 사셨더라도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보셨을 것을……” 하시며 안타깝게 녀두리 하셨다.

나는 막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감히 자처한다.

어릴 적엔 하루 걸러 한강 백사장에도 데리고 가 주셨다. 또 인왕산, 삼각산, 북한산, 근처의 산은 거의 다 데리고 다니셨다.

그 때 우리는 인왕산 밑 누하동(249번지)에서 살았다.

오빠, 언니들은 아버지 앞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았다. 할 말이 있으면 어머니를 통했다.

나는 노래도 마구 불러대곤 하였다.

하루는 아버지 책상서랍에서 굴러다니는 고장난 여자 손목 시계가 있는 것을 부셔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시계를 찾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큰일 났구나 생각하며, 미리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이실직고하였다.

그랬더니

“정직해서 용서한다.”는 말씀이셨다.

큰언니가 이화여전(梨花女專) 음악과에 들어간 뒤 파마를 하고 뽀족구두를 사 신고 들어오셨다. 그만 불호령이 내리는 것이었다. 머리는 물을 발라 뽀뽀 빗어 내려 핀을 꽃았고, 구두는 평화로 바꿔 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내가 배화를 졸업할 무렵은 해방된 뒤요, 6년제 일 회 졸업이었다(1949년). 보통은 4년이면 졸업인데 2년을 더 다닌 셈이다.

세월도 흘렀고, 세상도 변하였다. 나는 살짝 파마를 하였다. 파마를 하면서도 어릴적, 언니가 혼나던 기억이 되살아나 겁이 솔솔 났다.

머리를 뒤로 묶고 뒤통수가 안 보이도록 신경을 쓰며 행동하였다. 그러나 어찌 24시간 머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머리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웬 일일까? 그럼 통과된 것이로구나……하고 기뻐했다.

언니들은 말하신다.

“조것이 혼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괴롭혀 드렸나! 민망스럽기 그지 없다.

“공과 사(公과 私)가 분명하셔서 따님 결혼식에도……”라는 레파토리에 항상 등장하는 바로 그 장본인인 막내딸이다.

내가 택한 내 남편이 아버지 마음에 못마땅하신 것이다. 반대가 극심하셨다. 아버지께 처음으로 말뚱구도 하고 대들기까지 하였던 막내딸이다. 얼마나 분하셨으면

“공연히 고등 교육을 시켰다.”는 한탄까지 하셨겠는가…….

남편은 이복 출신이고, 부모도 안 계시고. 있다고 해야 동생 하나가 같이 이남에 있을 뿐이다.

남편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다. 남편을 크게 인정해 주셨던 분이 고 운형 중 신부(故 尹亨重 神父)님이셨다. 그 신부님의 웬만한 글은 남편이 대신 썼다. 그 신부님은 남편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 신촌 사택에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내 태도도 강경한 것을 보고 큰 오빠 내외분도 내 편을 들어 허락을 간청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승낙은 내렸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는 선언하신 바를 실천하신 것이다.

이것이 “공과 사가 분명하셔서 따님…… 어찌고”로 부풀려졌다. 물론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각양각색으로 각색되어 소문은 퍼져 나갔다.

남편 친구 신태민(연세 동문, 전 경향신문사 부사장) 씨는 이렇게 말했다.

“원. 김 선생님도 너무하시지. 교(천주교와 신교)가 다르다고 따님 결혼식에도 안나오시다니…….”

우리는 명동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올렸었던 것이다.

공연히 아버지께 누만 끼쳐드렸다. 또 한편에서는

“공과 사가 분명하시어 따님 결혼식날도 강의를 하셨다.”고.

그 당시는 승낙 내란 것만도 어디냐고 감격했으나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을 듣고 나니 슬그머니 부아가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일 년 동안 발을 끊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뒤를 보아 주셨다. 연세대학에서 대부분을 받아 대현동(大峴洞)에 아담한 집을 사 주셨다. 심지어는 결혼식날의 비용, 피로연(시청 앞 컨티넨털 클럽) 비용도 다 감당해 주시면서.

어느날 대현동 집에 이종은 교수(李鍾殷教授 前漢陽大文科學長)가 놀러 왔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발 끊은 사정)”면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중매(?)를 자청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런 야릇한 중매(?)를 선 셈이다. 이 교수가 남편과 함께 아버지께 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였다.

“저희가 안 왔지 내가 오지 말랬나?” 하시었다.

이로부터 우리들의 교류는 시작되었다.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극진함이 나의 큰 애(현재 40세, 경제학 박사)에게로 쏟아졌다.

홍사단 수양회다, 홍사단 운동회다, 대천이다, 만리포다.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서도 나는 아버지께 고통만 안겨드린 애물단지였다. 남편의 출판업이 부진하여 빚을 진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안 가재도구에 차압 딱지가 붙었던 것이다. 가재도구라야 변변한 것도 없는데…….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어안이 병병하였다. 급한 김에 어머니께 연락하였다.

이 때도 아버지는 일언반사 말씀이 없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결혼을 반대

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 귀를 때렸다.

“경제적 기반이 너무 없어. 네가 고생이야.”

결혼은 환상이 아닌란 체험을 뼈저리게 치루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업은 잘 풀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 다른 양상의 시련이 나를 엄습하였다. 마치 아버지께 잘못된 죄값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울쩍하면 아버님(어머니와 합장) 묘에 가서 울며 기도하였다.

“아버지. 노여움을 푸시고 저를 도와주세요.”하고.

내가 연세대학에 다닐 때 작은오빠한테 따라다니던 소문이 있었다. 작은오빠는 정치외교학과에 다니셨다. 꼭 듣고 싶은 과목이 교양국어(아버지 담당)와 맞물리게 되어 교양국어를 다음으로 밀었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 교양국어 과목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제 분도 낙제시켰다.”로 와전된 것이다.

오빠나 나나 꼭 같은 심리로 공동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좋았다.

연세에서 “석두”라는 별호가 붙은 아버지의 성격을 강조하다가 “공과 사의 분명하심”이 엉뚱하게도 “자제 분도 낙제 시킨다.”라는 소문을 낳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따님도 낙제 시켰다.”로 둔갑하게 되었다.

큰 나무 밑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 한다지…….

덜렁덜렁, 커닝도 기술적으로 잘하는 걸작 인물이 연세에 있었다. 시험 때가 되면 여학생 옆자리에다 자리를 잡는다. 어찌나 기술이 좋은지 보고 베끼는 쪽이 더 빠르다. 웃기기도 잘하는 이모 학생은 강의 시간을 주름잡는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재주를 피우다가 아버지께 걸렸다. 과제물을 늦게(기한을 넘김) 갖다 냈다. 그것도 몰래 슬쩍 끼워 넣었다.

아버지는 과제물을 모으면 그 즉시 수첩과 과제물에다 표시를 하여 두신다. 이것을 모르고 슬쩍 끼워 넣고는 잘된 줄만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 학생이 집으로 찾아왔다. 무릎 꿇고 앉아서 진땀을 빼는 것을 보았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학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 머리에 털난 뒤로 이처럼 야코(일본 속말)가 죽어보기는 처음이네”하며

머리를 굽적굽적하였다.

졸업한 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친구(여학교)의 일로 상공부에 동행했던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양반을 복도에서 만났다. 옛날의 그 일로 아버지께 유감이라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멈칫하였다. 그러나 그 양반 반가워하면서 하는 말이.

“사회에 나와 보니 김 선생님이 더욱 훌륭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노라.”한다.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계신 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속으로 고맙게 여겼다.

내가 소학교 1학년 때(1937년), 아침 일찍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끌려가셨다.

그 때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몰랐다. 학교에 가니까 담임 선생님(무릎 김 선기 선생님 부인)이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불러내시어 묻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물었으나 쉬쉬하며 알려 주시지 않았다. 그것이 수양동우회 사건이었다. 공판이 거듭되는 동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국선 변호사(일인)에게 인사할 것이 없어서 작은언니가 눈을 버려가며 공들여 곱게 수놓은 “원앙새 한 쌍”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한 것을 기억한다.

작은언니는 지금도 아깝게 여기신다. 너무나 공이 많이 들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큰오빠는 경의전(京醫專)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친구는 연구실에 남는데…….

큰언니는 이전(梨花女專) 음악과(교비생)를 나와 교편을 잡았다.

아버지(당시 요시찰인)는 10년 간 아무 것도 못 하시고 집에 계셨다. 자연히 큰오빠, 큰언니가 가계를 이어받았다. 10년 간을 열 식구로 살았다(조부모 두 분, 부모 두 분, 삼촌 한 분, 우리 오남매 5명 중 오빠 둘, 언니 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광주(廣州)에 농토가 있었기 때문에 쌀은 해결되었다.

내가 소학교 6학년 때 또 다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홍원 경찰서에 수감되었다. 그 때는 그 사실을 감추었다. 그러다가 여학교(배화) 입학 시험을 보게 되었다. 첫날은 학과목 시험이고 다음날은 구두 시험(면접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담당하신 선생님 중에 임학수(시인-월북)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이 물기를

“아버지는 무엇하는 분이냐?”는 것이다. 나는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 버렸다. 상급반 학생이 나를 위로하며 임 선생님을 원망하였다. 그 상급생은 우리 사정을 안 모양이었다.

그 해 9월에 가석방되었다. 석방의 조건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하였다.

나는 그대로 “김준녕”이었다. 그 때 현재로는 너무 늦어서 김(金)자를 넣고 창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일본식 창씨를 중용하였다. 우리를 조롱하느라고, 정, 김(金)자를 넣고 싶으면 김자 위에 큰 대(大)자를 올려 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허용된단다. 그리하여 대금(大金)으로 창씨를 하고 풀려 나오셨다. 그래서 나는 출석부에 “오오가네(大金)”로 기재되었다. 선생님들은 호명할 때마다 “오오가네(?)상” “다이킨(?) (大金)상”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하셨다. 아이들도 “오오가네 모찌꼬(大金持子)상” 하며 놀렸다(부자라는 뜻).

아버지는 석방되신 뒤 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옛날 인감도장에다 만년필로 큰 대자를 덧붙여 놓으셨다. 그 명예로운(?) “창씨”명으로 일 년 남짓 사용하다가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국어강습이다. 강연회다 하여 동문서주하시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잠깐 6·25가 터졌다.

이 때 아버지는 총장서리로 계셨다. 아니 피난하시겠다는 것을 작은오빠가 간신히 설득하여, 잠깐동안 비킨다는 조건으로 수락하셨다.

밀려서/밀려서 간 곳이 고향(廣州)이었다. 고향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나 빨리 알기 때문에 숨을 곳이 못 되었다. 먼 인척 중에 빨갱이가 있어 우리를 내무서에 질렀다. 한밤중에 인민군 네 명이 앞뒤로 총대를 들어대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안내하라고 한다.

어머니와 나는 부들부들 떨며 밤길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안내하였다. 아버지와 작은오빠는 오밤중(밤 2시)에 내무서로 끌려갔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두어 시간만에 돌아올 오셨다. 아버지는 고지곤 대로 “총장서리”요, 작은오빠는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신 모양이다. 자기네가 들은 정보와 부합되니까 일단은 풀어준 것이다.

그 당시 인민군의 일차 목표는 군경이었다.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 군인 가족(그 당시 큰오빠가 군의관 대령)이 있지 않은가?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고향 사람들은 누가 누구지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큰오빠 가족을 외손자, 외손녀로 만들고 큰올케가 큰언니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며느리가 딸이 된

셈이다. 그래서 큰올케는 “숙임”이가 되었다.

“숙임(큰언니)이로구먼. 모습이 변해서 알아 볼 수가 없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조카들한테 주입시키기를 무엇을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으면 큰조카(당시 7세, 현재 54세)는 이름을 묻는데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런, 제 이름도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군인 가족은 모면하였다.

우선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느긋한 마음에서 아버지와 작은오빠를 풀어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수염을 길러서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다. 낮에는 맥고 모자를 눌러 쓰시고 밭에서 버러지를 잡으셨다. 작은오빠는 낮에는 뒤풀 뒤에 숨어서 살았다. 함포 사격 소리가 은은히 들리곤 하였다. 내무서원 중에 마음 약한 먼 인척이 있었는데, 줄곧 우리에게로 와서 집에 질린 소리를 하였다. 세상이 뒤집히면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끝내 실성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인민군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이놈들이 쫓길 때 해코지를 할 테니까 한 발 먼저 광주를 떠나야 한다는 오빠의 말을 따라 외가집(開日)으로 피신하였다.

외가는 용인군과 광주군의 접경지에 있었다. 용인군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용인군의 변두리이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삼태기 안 같은 곳이라 뺑 둘러 국군이 들어왔어도 이 곳은 인민군 패잔병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서울에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백사장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었다고 한다.

어쨌든 6·25는 무사히 넘겼다. 이 때 몽땅 도둑맞고 훌가분하게 부산(1·4 후퇴)으로 내려갔다.

부산 초량동 학부형(전 청와대 비서관, 朱冠中 씨) 집 8조 다다미(일식) 방에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거저 살고 있자니 여간 송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影島) 언덕, 바닷가에 판자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파도 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바닷가 판자집이었다. 피난살이지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이 때 여운홍(呂運弘, 여당 의원) 씨가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나는 교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소이다. 앞으로도 그리 알고 살아갈 것이요.”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시는 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손짓

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정계로 들어가는 학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결국은 창피만 당하고 나올 것을 말이다. 한평생 오직 한 길만을 한결같이 걸어가셨던 아버님께 무한한 존경을 보내 드린다.

돌아보면 훌륭하신 아버님께 누만 끼쳐 드린 보잘 것 없는 딸이 두 손 모아 용서를 빌 뿐이다.